



19일 오후 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삼성하우젠 K-리그 2006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성남 일화 우승용이 수원 삼성의 골문을 향해 결승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프로농구 전주 KCC와 부산 KTF의 경기에서 KCC의 벤트(왼쪽)이 흑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시 프로배구 연고팀 현대캐피탈 유치 총력

내년초 프로배구가 출범함에 따라 프로배구단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수시가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배구단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한국배구연맹(KVL)이 닷을 올리게 됨에 따라 2005년부터 배구도 축구, 야구와 같이 프로리그로 전환해 각 자치단체별로 배구연고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 이미지 창출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 여수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프로배구단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지혜(송원여상) LG정유 김미혜(목포여상) 도로공사 여자배구 신인 드래프트

여자배구 '고졸 최대어' 나혜원(일신여상)을 비롯해 고졸 선수 22명이 드래프트로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아 성인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한국배구연맹(KVL)이 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05여자배구 신인 25명을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실시한 결과 1라운드 1순위(계약금 1억5천만원) 지명을 받은 라이트 공격수 나혜원은 지난 시즌 V투어 역순위 지명 방식에 따라 LG정유에 입단했다. 각 구단별 여자배구 고졸선수 드래프트 결과(순서는 라운드 지명 순). ▲LG정유=나혜원(일신여상) 이지혜(송원여상) 박하나(강릉여고) 조난연(선명여고) 손유리(대구여고) ▲흥국생명=황연주(한일전산여고) 태술(세화여고) 이현정(포항여고) 최원희(세화여고) ▲KT&G=임명옥(마산제일여고) 최희정(선명여고) 송보라(한일전산여고) 한소라(강릉여고) ▲도로공사 = 오현미(일신여상) 강민정(대구여고) 김미혜(목포여상) 권정은(강릉여고) 신다혜(대구여고) ▲현대건설=이진희(근영여고) 박진왕(서문여고) 황진숙(일신여상) 김지희(한일전산여고) /연합뉴스

우성용 결승골...성남 정상 눈앞

K리그 챔피언전 수원 1-0 제압...2차전 비겨도 우승

성남 일화가 우성용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수원 삼성을 꺾고 통산 일곱번째 프로축구 정상 등극에 성공 다가갔다.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은 19일 분당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후반 43분 터진 베테랑 골잡이 우성용의 극적인 헤딩 결승골로 후기 우승팀 수원을 1-0으로 제압했다. 성남은 이로써 25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겨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수원엔 2차전에서 한 골 차로 이기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가고 두골차 이상 이기면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 득점 없이 끝날 것 같던 승부는 마지막 남은 2분의 집중력에서 갈렸다. 모파, 네아가와 함께 스리톱의 중앙에 선 33살 거다리(191cm) 공격수 우성용은 전·후반 내내 수원의 강인한 대인마크에 묶여 이

렇다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 득점 순위 1위를 달리며 화려하게 부활한 우성용은 중대 일전에 믿고 내보낸 성남 김학범 감독의 부름에 짜릿한 한 방으로 화려하게 보답했다. 우성용은 후반 43분 박진석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그리는 크로스가 날아오자 골지역 왼쪽에서 전매특허인 방어짱기 헤딩슛을 내리 꽂았고, 붉은 이전까지 철벽 방어를 펼치던 수원 수문장 박호진이 손쓸 수 없는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꽂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힘껏 뺏어봤건만

1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프로농구 전주 KCC와 부산 KTF의 경기에서 KCC의 벤트(왼쪽)이 흑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김종국 FA 계약...2년간 5억5천만원

KIA 김종국 등 7명이 FA 우선 협상 계약을 맺었다. FA를 선언했던 12명 가운데 진갑용이 역대 포수 최고 몸값인 3년 최대 26억원을 받고 삼성에 잔류했고, 같은 삼성 투수 전병호(2년 9억원)와 내야수 김재결(2년 5억6천만원)도 재계약에 성공했다. 또 SK 투수 김원형(2년 7억5천만원)과 포수 박경완(2년 10억원), KIA 내야수 김중국(2년 5억5천만원), 한화 투수 권준현(2년 5억원) 등 총 5명이 원소속팀 잔류를 선택했다. 계약이 체결된 이병규(전 LG), 박명환(전

두산), 김수경(전 현대)과 노장진(전 롯데), 차명주(전 한화) 등 5명은 나머지 국내 7개 구단 또는 해외 구단과 교섭을 벌이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월) ▲제6회 전국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결승(14:00-KBSN SPORTS) ▲농구대잔치(단국대-동국대) <상무-중앙대>(11:50-SBS스포츠)

김동민(유척초) 초등부 우승 국민생활체육경도대회

유척초등학교 김동민(12)군이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연합회장이 국민생활체육전국경도대회 초등부 고학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상무관 검도팀을 비롯, 전국 350개팀 2천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노장부에서는 무진검도관 심양모(52)씨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첨단검도관 이영환(52)씨는 3위에 올랐다. 단체전 초등 고학년부에서는 수검검도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무진검도관은 일반부 종합 3위에 올랐다. 광주 상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설기현 3호골

'스나이퍼' 설기현(27·레딩FC)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호골을 터트렸다. 설기현은 19일 오전 홈 구장인 영국 레딩 마데스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찰튼 어슬레틱과 2006~2007 프리미어리그 13차전에서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 88분을 뛰며 전반 18분 선제 결승골을 성공

발해 3골 2도움을 올렸다. 설기현은 88분을 뛰고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3분 존 오스터와 교체됐다. 최근 주 포지션인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를 부상에서 복귀한 글렌 리블에게 내준 설기현은 위치를 바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지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멀티 플레이어로서 능력을 뽐내 스티브 코플 감독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기현은 이날 경기 후 영국 스포츠전문 인터넷 매체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승리의 주역'이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Discount 50% ~ 40%

OLZEN 후

방인 투스온 패션 아울렛 1층 올ZEN매장 T. 052-911-8109

300여종 빛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ANTIQUE FURNITURE GARDENING

1층 연희가구전문점 T. 055-8820